법당을 초상화로 본다

윤길중 사진전 '큰법당'
5월 8일~27일 갤러리 류가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찰 당우의 초상(肖像)을 기록한 작품이 전시된다. 사진전 '석인' 으로 기록사진과 예술사진의 경계를 아우르며 작업과정의 치열한 밀도를 보여준 바 있는 있는 사진가 윤길중이 5월 27일(화)까지 류가헌에서 사진전 '큰법당' 을 개최한다.

사람들은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기 위해 서로의 모습을 '초상' 으로 남겨두었다. 사진이 없었던 시절엔 그림으로 남겼고, 오늘날에는 사진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스님들의 진영도 같은 맥락이다. 윤 작가는 사찰의 전각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지금은 눈앞에 있지만 언제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변해간다고 생각했다.

전국 천여 곳의 전통사찰에는 각기 다른 전각들이 있다. 그 전각들은 대부분 목조양식의 건물들이다. 그래서 서양의 석조양식에 비해 보존이 어렵고,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의 위험성이 높고, 세월의 풍파로 인한 변형을 감수해야 한다. 윤 작가가 사찰 전각들의 초상을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윤 작가가 4년여에 걸쳐 제작한 큰법당의 초상 108점이 전시된다. 사진은 사진집 〈큰법당〉으로 묶여 나왔다.

윤 작가의 큰법당 초상은 기존의 사진들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기록이다. 단순히 촬영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 촬영된 사진에서 하늘과 구름을 지우고, 멀리 고찰을 감싸고 있는 산등성이들과 가까운 나무들도 지웠다. 심지어 주변의 그림자까지 지웠다. 그러자 날렵한 용머리와 천년 풍상을 흐트러짐 없이 견뎌온 전각의 선들이 드러난다. 섬세하게 양각된 단청들의 형태와 색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덤벙주초 위의 배흘림기둥, 기둥에 걸린 주련들, 그 사이 낱낱의 문창살마다에서 거북, 두루미, 개구리가 튀고 연꽃과 모란이 핀다. 처마 밑에는 이름을 새긴 현판이 부처 이마의 영안처럼 정 가운데에 또렷이 찍혀있다. 이 땅 절집들이 가장 큰 부처인 본존불을 모시는 곳, '큰법당' 의 모습이다.


〈의성 대곡사〉

윤 작가는 인물의 초상을 만들 때처럼 전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모든 불필요한 배경과 부속물들을 보정 작업을 통해 모두 지웠다.

원리 자체는 단순하지만 배경을 지우고 형태 그대로 윤곽선을 오려내는 과정은 기술 너머의 일이다. 처마 끝 풍경에 매달린 작은 물고기 하나의 윤곽선도 왜곡이 없어야 했으니, 법당 앞에 백일홍 나무가 서 있는 위봉사 큰 법당은 윤곽을 오리는 데만 꼬박 24시간이 걸렸다. 그처럼 지난한 여정을 거쳐, 기존의 절집 사진들과는 완연히 다른 윤길중만의 '큰법당' 이 지어졌다. 사진가 윤길중이 사진이라는 매체로, 즉 오로지 그 자신의 심미안과 사진기술의 공법으로 축조한 우리 땅의 '큰 법당' 들이다.

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물리적 시간만 4년여가 걸렸다. 다닌 사찰 수가 강화도에서 저 아래 제주까지 260여개를 넘는다. 인적이 없어야 하므로 인파가 몰리는 때를 피해서 추운 겨울이나 궂은 날, 처마 밑에 그림자가 지지 않는 특정한 시간대만을 골라서 가야 했다. 그렇게 피해서 가도 현수막이나 연등이 장해가 되어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으니, 오고간 횟수는 기록한 사찰의 수를 훨씬 상회한다.

경기불교문화원

'붓다로 살자' 展 5.14~23
수원문화재단 갤러리

(사)경기불교문화원은 201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제1회 붓다 사진전 '붓다로 살자' 展을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수원문화재단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수원시 불교연합회와 수원시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한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불법(佛法)의 전파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대중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수원지역 사암연합회 회원들과 전문 사진가들의 사진작품 50여 점이 전시된다. 문의/ 경기불교문화원 031-251-1083.

박재완 기자


수산 스님 作, 희망의 빛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불화 특별전

'붓 끝으로 펼쳐진 부처님 세계' 展
5월 4일~7월 31일 기획전시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201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불화 특별전 '붓 끝으로 펼쳐진 부처님 세계' 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월정사를 비롯한 강원도 중남부 사찰에서 전해 내려온 다양한 조선후기 불화들이 전시된다. 극락세계의 아미타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담은 월정사 아미타후불도와 신흥사 아미타후불도, 불법을 수호하는 각양각색의 신들이 표현된 신중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나한의 일탈 장면이 그려진 보현사 십육나한도,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영원사 감로도, 지하세계에서 중생을 심판하는 염라대왕을 담은 백운사 현왕도 등 불전을 장엄하는 다양한 불화들을 선보인다. 또한 〈묘법연화경〉, 〈화엄경〉 등 불교경전에 그려진 변상도 4점도 전시된다.

여러 주제의 불화들은 저마다 선조들의 정성과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다양한 모습의 불화들은 여러 존재들을 포용하는 불교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부처님 세계를 음미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월정사 아미타후불도(1861).

대담 · 다큐… 봉축 TV프로그램 '눈길'

BTN, 부처님오신날 특집프로그램 다채

부처님오신 것을 찬탄하는 부처님오신날. 재적 사찰에서 봉축법요에 참석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면, TV를 통해 부처님 탄생을 축하해 보는 것은 어떨까.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선지식 대담부터 다큐멘터리 등 볼거리 풍성한 봉축 특집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 종정 스님과의 대담인 '진제 스님 할!,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이다. 5월 22일 오전 7시 30분 · 23일 오후 3시 · 26일 오후 9시에 방영되는 대담은 진제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특별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부처님 상을 조성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은 봉축 다큐멘터리 '불상, 자비광명의 몸을 나투시다' 는 5월 22일 오후 3시 · 23일 오후 11시 ·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철두철미한 수행 정신으로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끈 한암 대종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방영된다. 방영 시간은 5월 21일 오전 7시 30분 · 22일 오후 11시 · 27일 오전 12시 30분.

장애인불자들의 동남아 불교 성지순례기 '장애인불자, 동남아 성지를 누비다' 는 5월 22일 오후 5시 · 25일 오후 2시 · 26일 오전 7시 30분에 방영되며, 한국 비구니 스님 최초로 미얀마 대통령에게 작위를 받은 백련암 혜송 스님의 이야기를 다룬 '밍글라바! 담마 마마까 백련암 혜송 스님' 은 5월 22일 오전12시 30분 · 24일 오후 5시 · 25일 오후 11시에 찾아간다. 이밖에도 '법안 스님과 떠나는 미얀마 구도이야기' (5월 22일 오전 8시 30분 · 23일 오후 1시 30분 · 26일 오후 3시) · '〈봉축음악회〉 스님이 부르는 부처의 노래(5월 21일 오전 11시 30분 · 24일 오후 3시)' 등도 방영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영담 스님 '한지 특별전'

전통한지문화를 연구하고 재현해온 영담 스님은 6월 15일까지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마드리드 한국문화원 갤러리 한울에서 '한지 특별전' 을 갖는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 개관 5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한지 특별전' 에는 영담 스님이 직접 만든 종이류 백 가지와 창작품 32점이 전시되며 콜레보레이션 작가로 현여리 스님의 서양화기법의 약사여래불 창작품 6점이 선보인다. 영담 스님은 5월 9일 마드리드 국립장식미술관에서 스페인종이작가들을 위한 한지특강과 10일 마드리드 국립대 어학부에서 한지 특강을 열었다. 영담 스님은 세계 종이문화속에 빛나는 한국의 전통종이를 소개하며 특히 한국의 종이 발달사의 불교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강의에서 영담 스님은 1986년 정부에서 영담 스님의 종이로 간행한 〈월인천강지곡〉과 〈직지〉를 선보이고 한지로 공책을 엮는 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